



엄마 젓이 최고!

<편집실>

엄마 젓 먹이기 작품공모를 보면서 문득 응모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기억 속의 여행길 — 에 나선다.

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셋을 둔 겁날게 없다는 소위 간 큰(?) 여자다.

사실 나의 결혼생활은 한편의 소설이 되리만큼 파란만장해서 나의 아이들도 그속의 어찌 보면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참 만나기 힘든 환경에서 만나 결혼과 동시에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다른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조금은 응석도 부리면서 생활한다는데 난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해야만 했다.

남편은 전남 광주, 그리고 나는 경남 마산, 그야말로 우리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결혼한 실천적인 부부였다.

그래서 출산은 남편이 거주하는 광주에서하기로 하고 분만 휴가를 받아 남편이 사는 곳으로 갔다. 2~3일 후 갑자기 찾아온 진통, 그리고 열 시간 반만의 힘든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고, 조금은 서러운 산후 조리에 들어갔는데 퇴원하면서부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설은 생활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젓이 도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는데도 시어머님은 젓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냈고 난 나름대로 서러워 눈물만 푹푹 흘리며 툭툭 붙어오는 젓만 마사지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먹었다는 분유를 먹이며 왜 빨리 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도 하며 열심히 뜨거운 물수건으로 마사지를 했다.

드디어 삼 사일이 지나고 초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난 아이에게 젓을 물리면서 비로소 엄마가 되었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차마 알지 못한 채 아이와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짬도 없이 젓을 물리는 어리석은 엄마가 되어갔다.

정말 아이 키우는 일은 책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애들마다 특성이 다르니 내 방식대로 키울 수밖에....

남편은 모유 지지자였다. 난 처녀적의 그 예쁜 가슴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영양이 듬뿍 들어 있고 면역성분이 들어 있어 저항력도 길러준다기에 초유만 먹고 그 다음엔 분유를 먹고 싶었다.

아니 그러다 또 사랑스런 내 아이를 보니 갈등이 생겨 몸매생각은 잊어버리기로 했다.

밤낮이 뒤바뀐 아이는 밤엔 아예 잠잘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덩달아 몸조리를 해야 하는 난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시달려 울기만 하는 산후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젓을 먹이고 싶지도 않고 아이가 예뻐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날 힘들게 하는 게 싫고 모든 게 귀찮고 허무했다. 남편이 왜 모유를 두고 우유를 먹이느냐고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한 젓몸살로 내 몸은 불덩이가 되고 난 헛소리를 할 정도로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약 좀 사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남편은 젓 먹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매정하게 거절해 버렸다.

얼마나 아속하고 미웠는지 다신 얼굴도 보고싶

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진통제나 항생제를 먹고도 젖을 먹일 수 있다고 했다.

약 대신 얼음주머니로 퐁퐁 부어 올라 손도 닿 수 없으리 만치 아픈 가슴 위에 갖다대면서 빨리 낫기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살았나 싶게 이를 후 다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전 젖이 나오는 것도 원만해지고 아이도 잘먹어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나 밤낮이 바뀌어 하루는 잠자다 일어나 안고 젖을 먹었는데 하도 잠이 와 젖을 물린 채 난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어 버렸다.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 아이 입에서는 젖꼭지가 이미 빠져 있었고 팔에서 목이 찢혀져 하얗게 백지처럼 변해 있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라 난 그 순간 아이가 죽은 걸로만 생각해 고통을 지르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늘이 도왔는지 아이는 의식이 돌아왔고 그 이후로 난 아무리 피곤해도 젖을 물린 채 잠들지는 않았다.

모성은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조금만 더 잠들었으면 지금의 내 아이는 어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했을 거다.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힘겹게 아이를 돌보다 출산휴가가 끝날 무렵 난 친정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서러움에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가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새삼 엄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마음을 안다고 하는가 보다.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난 40일의 짧은 휴

가를 마치고 출근을 해야 했다.

다들 젖을 떼고 출근준비를 한데는데 웬지 낮에 돌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미안해서 젖을 끊고 우유를 먹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유를 먹일 경우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낮엔 유축기로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고 출근을 했다.

아이를 안고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젖 냄새를 아는지 아이는 우유병에 든 모유를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밤에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우유를 먹었더라도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점에서도 모유 먹이길 잘했다 싶었지만 그것도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다. 직장에서 젖

이 불어 걸옷이 젖어 흥한 모습이 되었고 또 수시로 젖을 짜러 화장실을 드나들어야 했고 젖이 불었을 때의 고통이 만만치가 않았다.

혹 젖 냄새가 나 직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까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른다.

치과위생사로 일했기 때문에 총각인 치과 의사가 좀 무디어 그나마 어렵사리 그럭저럭 알게 모르게 지낼 수 있었다.

다른 여직원들은 그렇게 해가며 젖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며 안쓰러워했다.

사실 내 아이가 밤에만 젖 먹으러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끊었을지 모르겠다.

낮에 엄마와 떨어져 있다가 밤에라도 엄마의 체온 속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잔병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가 고맙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